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65-0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스|포|츠|인|권|리|포|트|

합숙소 앞에 멈춰선 인권

합숙소에 사는 학생 선수들의 목소리

국가인권위원회

"우리 아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합숙소 앞에 멈춰 선 인권

일러두기

① 시·도 교육청 등에서는 합숙소와 기숙사를 구분하기 위해 '합숙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숙사(宿舍)에 묵으면서 함께 지내는 일. 특히 연구나 운동 연습 따위를 위해 함(통학 거리 고려 없이 무조건 합숙 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에서의 '기숙'은 '학교나 공장 같은 기관에서 원거리 통학이나 출퇴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숙식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생활함(원거리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고 정의하면서, 원거리는 통상 통학 1시간 내외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조사팀이 방문한 16개 교 중 일부는 '기숙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그 실제 운영 방식은 '합숙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본 책에서는 '합숙소'로 통칭했습니다. 다만, '기숙사'라는 표현이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살려 두었습니다.

②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바꾸었고, 익명을 원칙으로 삼은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 실태 전수 조사'에 의견을 밝힌 학생 선수들은 무기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학교 이름은 편의상 ABC……로 칭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스 | 포 | 츠 | 인 | 권 | 리 | 포 | 트 |

합숙소 앞에 멈춰선 인권

합숙소에 사는 학생 선수들의 목소리

국가인권위원회

끝내 울창한 숲을 이루기를

하늘의 별이 된 축구 꿈나무들

2003년 3월 어느 날, 천안의 한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에 그만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곳에는 고된 훈련을 마친 축구 꿈나무 24명이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불은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러나 멋진 축구 선수가 되어 세계를 누비고 싶던 9명의 어린 꿈나무는 하늘의 별이 되어야 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큰 상처를 입었지요.

합숙소는 1993년에 지어진 111제곱미터(34평)의 벽돌집 슬래브 건물이었습니다. 달랑 방 2개에서 24명의 아이가 복닥거리며 생활해야 했지요. 창문은 방범용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거나 에어컨과 신발장으로 막혀 있어 탈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힘겨운 훈련에 도망이라도 칠까 봐 감독이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하는 바람

에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화마에 시달리던 아이들의 그 끔찍한 순간을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채 아직도 울고 있을 부모들의 아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인권 침해 장소로 지목되는 합숙소

그렇게 하늘에 아홉 개의 별이 새로 돋아난 후에야 학생 선수 합숙소에 우리 사회가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2007년 국회는 '학교의 합숙소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에게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운동부 합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하여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13년 '학교의 장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 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합숙 문화를 단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요. 그로 인해 언론과 시민 사회는 합숙소를 여전히 인권 침해 장소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합숙소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전환기를 맞이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 아래 합숙소를 인권의 눈으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합숙소 문제에 특히 주목한 이유는 학생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또래들과 함께 먹고, 자고, 쉬는 등 생활하는 중요한 터전이 바로 합숙소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16개 교 50명의 학생 선수를 만나다

2019년 현재 전국 중고교 학생 선수는 4만 7000여 명. 이 가운데 전체 25%에 달하는 1만여 명이 합숙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국 초중고 학생 선수 기숙사 및 합숙소는 체육중고를 제외하고 380개. 초등학교 1개(프로 구단 산하 유소년 축구팀), 중학교 66개, 고등학교 313개 등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등은 2020년 중학교 기숙사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을 세웠으나, 서울 지역 30개를 비롯한 전국 66개 등 아직도 많은 중학교에서 기숙사 및 합숙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습니다.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내에 꾸려진 조사팀은 지역과 종목, 학교급 및 성별 분포를 적절히 고려하고, 교육부 실태 점검 결과 원거리 학생뿐만 아니라 근거리 학생을 포함한 상시 합숙이 이뤄지는 곳으로 추정되거나 (성)폭력 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7개 교, 비수도권 9개 교,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13개 교 등 총 16개 교를 방문 조사했습니다.

전체 현황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와 2019년 7월 전국 약 5200개 교 5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가인권위원회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 실태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인권의 눈으로 들여다본 합숙소

이번 조사는 수많은 인력이 땀을 흘리며 공을 들였지만 몇 가지 한계를 지닌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 380개 기숙사 및 합숙소 중 16개라는 조사 대상의 한계, 종목과 지역이 고르지 못한 점, 일대일 심층 인터뷰가 2시간 내외의 일회성이었다는 점, 인터뷰가 대부분 학교 안에

서 이루어진 탓에 학생들이 깊숙하고 내밀한 이야기를 드러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은 이번 조사의 주요한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이 들려주는 합숙소 실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커다란 울림을 남겼습니다.

축구 꿈나무 9명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6년이 흐른 오늘,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합숙소는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령 취지가 무색한 강제 합숙은 학생들 사이에서 당연시되고 있었고, 한 방에서 10명 이상이 생활하는 곳도 상당수에 이르렀으며,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하고 대피로나 비상구가 없어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침실에까지 CCTV를 설치해 학생 선수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곳도 있었으며, 관등성명을 외치면서 매일매일 긴장 상태로 살아가는 여고생의 고통이 배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선배의 장기간 폭력이나 동성 간 유사 성행위 강요 등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 선수도 상당했습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에 울분을 터트리는 여학생 선수들도 만났습니다. 온종일, 1년 열두 달 운동만 해야 하는 '운동 기계'가 돼 버린 학생 선수들의 신음도 들렸고,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합숙소 환경에 어찌할 바 모르는 어린 학생 선수들의 깊은 한숨과도 맞닥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렸습니다.

전국 중고교 4만 7000여 학생 선수의 꿈이, 특히 합숙 생활을 하는 1만여 학생 선수의 꿈이 꺾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햇볕을 잘 받고 영양분을 고루 섭취해 그들 모두 한 그루의 나무로 자라나 끝내 울창한 숲을 이루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프롤로그 | 끝내 울창한 숲을 이루기를 · 4

선택권이 없는 삶
“합숙소 생활을 안 해도 돼요?” · 14

안락함이 없는 삶
“잘 먹고 푹 자고 편히 쉬고 싶어요” · 22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는 삶
“안전시설은 기본이잖아요” · 30

감시와 통제로 멍든 삶
“우리의 ‘최애품’ 휴대폰을 돌려주세요” · 40

엄격한 규율과 위계로 얼룩진 삶
“매일매일 온몸이 긴장 상태예요” · 5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성)폭력에 노출된 삶
“장난이라는데 너무 괴로워요” · 58

차별받는 여성 선수의 삶
“여자다움요? 자궁을 없애고 싶어요” · 66

‘운동 기계’로 내몰리는 삶
“즐겁게 운동하고 싶어요” · 76

학업이 이중고인 삶
“공부도 잘하고 싶어요” vs “공부도 잘하라고요?” · 82

에필로그 | 그 길 끝에서 마침내 만날 환한 얼굴 ·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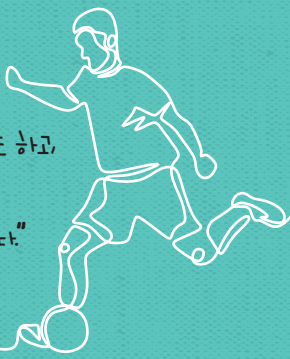
“우리 아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집에서 학교까지 차 타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집이 먼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가까워요.
하지만 합숙소 생활을 안 하는 친구는 없어요.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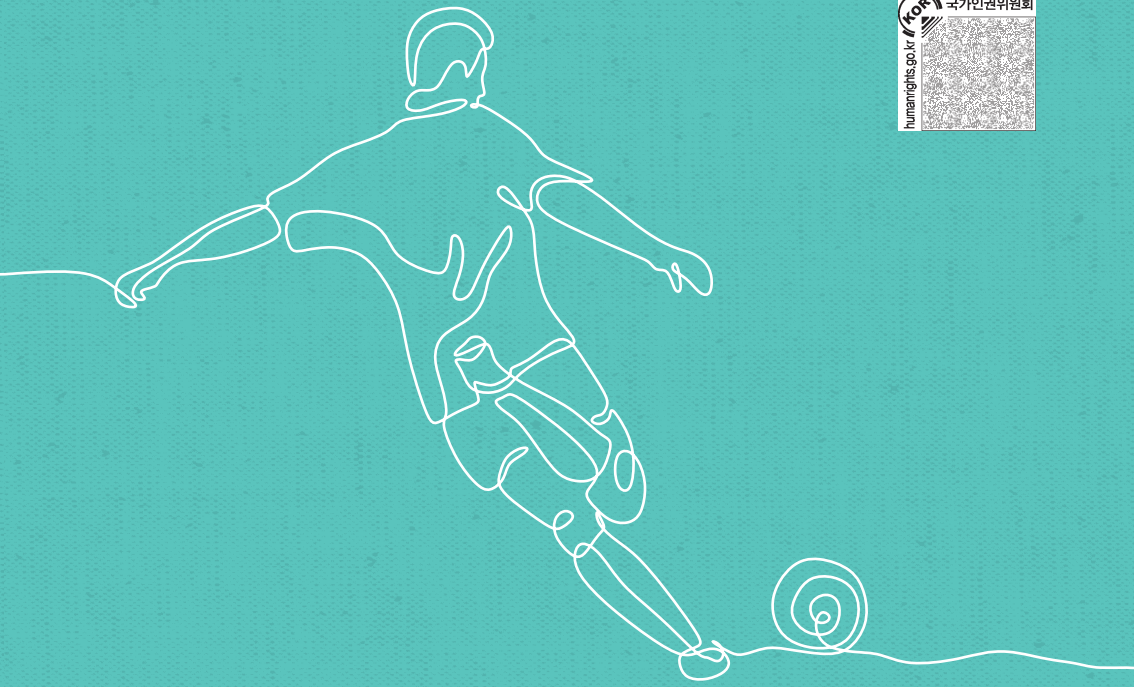
—F고교 축구부 3학년 조한경

"저는 집이 멀어서 합숙소에서 생활하는데,
통학 시간이 30분 정도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이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통학을 하면 집이 먼 선수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단합을 위해서라고도 해요. 단합을 위해
다 같이 합숙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O고교 축구부 2학년 이새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합숙소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 선수들이 기량이나 체력 면에서 우리보다 더 좋잖아요.
기량이나 체력은 합숙소 생활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모여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F고교 축구부 2학년 최영후

근거리 학생까지 기숙사(또는 합숙소) 생활을 하는 것은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 운영을 허용'
하도록 정한 학교체육진흥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입니다.
더구나 지도자들이 강제 합숙을 방침으로 정하면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합숙 생활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합숙소 생활을 안 해도 돼요?”

"합숙소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해 왔다는 I여고 농구부 2학년 김지윤 학생. 지윤은 1시간 정도 진행된 인터뷰에서 단체 생활과 훈련의 어려움만 토로할 뿐 운동부나 합숙소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에 속내를 쉽사리 드러내기 어렵겠거니 이해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려는 순간, 지윤이 슬쩍 조사팀 눈치를 살핍니다.

“근데 정말 합숙소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해 온 학생 선수 대부분은 합숙소 생활을 당연시합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의문을 품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습니

다. 합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집에서 다니면서 운동하고 싶어요."

낮은 목소리로 지윤이 대답합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충분히 통학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단체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군대, 아니 교도소 같아요. 운동부 분위기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집에서 다니면 분위기 안 좋아도 운동 끝나면 그만인데, 합숙소에 같이 있으면 저녁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서로서로 눈치 보느라 편히 쉬는 게 불가능해요."

법령 취지가 무색한 강제 합숙

전국 초중고 학생 선수 기숙사 및 합숙소는 체육중고를 제외하고 380개입니다. 380개 가운데 학생 선수 전원이 생활하는 곳은 187개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 이 중 157개에서는 원거리 학생이 아닌 근거리 학생까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상

시 합숙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 운영을 허용' 하도록 정한 학교체육진흥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운동부의 합숙 생활은 오랜 관행으로 대다수 학생 선수에게 의무로 강요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과 관련한 주요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합숙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또한 운동부 지도자들이 강제 합숙을 방침으로 정하면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기결정권 침해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도 포함되는데, 일반적 행동자유권 보호 영역에는 개인의 생활 방식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 합숙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기숙사 생활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합숙하면 경기력이 좋아진다고요? 그럼 프로 선수는 다 합숙하게요?"

우리나라에서 학생 선수의 합숙 훈련은 1962년 대학 특기자 제도 도입, 1964년 도쿄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시작된 군대식 훈련 방식, 엘리트 스포츠 산실인 태릉선수촌 건립 등 국가 주도 체육 활성화 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합숙소는 미약한 체육 저변을 넓히기 위한 최고의 방편으로 인식되었으며, 우리나라 스포츠 경쟁력의 인큐베이터 역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가, 지역 그리고 학교 간 대항전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하기 위한 몸(체력)을 만들고, 기량과 팀워크를 쌓아 올려 승리와 메달을 획득하며, 선수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및 학교의 '위상을 드높인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합숙소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합숙소 내에서 벌어지는 온갖 인권 침해는 이러한 명목에 가려져 왔지요.

그렇다면 과연 합숙 생활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다부진 체격이 체육 선생님 눈에 띄어 중1 때부터 야구를 했다는 G고교 박진환 코치. 박 코치는 프로팀에서 선수 활동을 하다 유소년 야구 코치를 거쳐 현재 G고교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이 현장

을 돌아다니며 만난 여러 감독이나 코치 중 드물게도 색다른 시각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상시 합숙을 하면 경기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옛날 사고방식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프로 선수도 다 합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운동선수는 휴식이 중요합니다. 또 잘 먹어야 합니다. 특히 학생 선수들은 집밥 먹고 잘 쉬어야 힘이 나서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몸을 회복해야 하는 비시즌 기간에는 웬만하면 집에 보내서 집밥 먹고 잘 쉬게 합니다."

일리 있는 박 코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3명이 방 2개와 거실 하나에서 생활하다 보니 사생활을 전혀 할 수 없어요.
밤 1아시 정도면 소등을 하는데, 저는 밤에 끼고 아침에 빼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드림렌즈를 끼거든요.
근데 소등 전에 못 갈 때가 종종 있어요. 친구들 다 누워 있는데 불을 켜야 해서
가끔 다툼이 벌어지기도 해요. 또 키 크는 주사를 스스로 놓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로 친구들과 자주 다투게 돼요."

—F고교 축구부 1학년 김정민

"엄마도 그립고 집밥도 그리워요.
숙소에서 맨날 시리얼만 먹으니까 속이 니글거려요. 콜라 엄청 먹고 싶어요."

—중학교 축구부 2학년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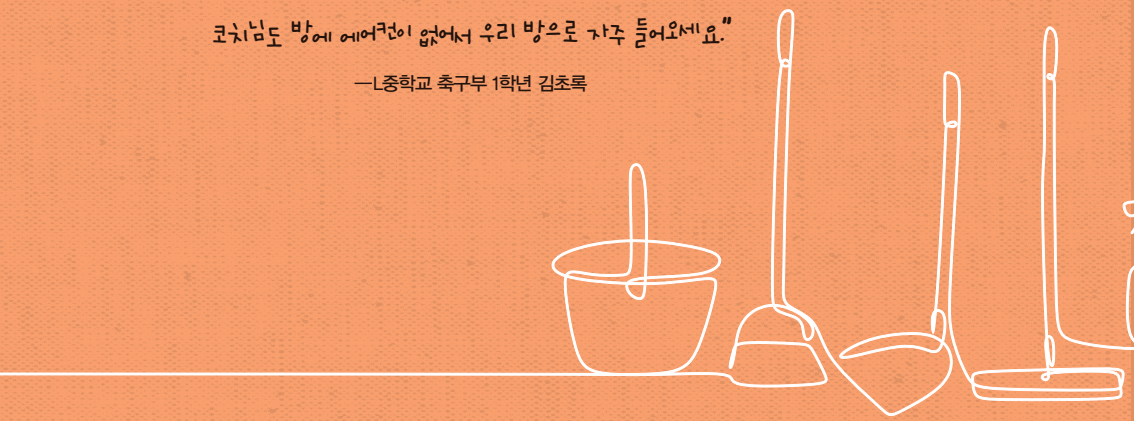
“우리 아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합숙소는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세탁기를 돌리면 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래는 팀원이 다 씻고 난 뒤 해야 합니다.
밤 11시 넘어 잘 때가 많지요. 잠을 잘 자지 못하니 늘 피곤해요.”

—F고교 축구부 2학년 최영후

“방이 총 3개인데, 2학년 방은 에어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2학년 형들이 주로 우리 방으로 와서 잡니다.
코치님도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우리 방으로 자주 들어오세요.”

—L중학교 축구부 1학년 김초록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합숙소 만족도는 점수로 치면
10점 만점에 6~7점? 불편하고 고칠 부분이 많지만
요구하면 저희가 돈을 내야 하거든요.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는 게 싫어서
불편해도 참고 생활해요."

—F고교 축구부 3학년 조한경

밀집된 공간에서 단체로 잠을 자고 가장 은밀해야 할
사적 공간인 샤워실마저 공중목욕탕 같은 합숙소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최악의 터전입니다.
적절히 휴식을 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안전시설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합숙소 대부분 CCTV, 소화기, 스프링클러,
비상구, 대피로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안전에 매우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학생 선수의 안전과 생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잘 먹고 푹 자고 편히 쉬고 싶어요”

빨래와 전쟁 중인 10대들

F고교 축구부 합숙소를 방문한 날은 비가 내리는 9월 초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더위를 식혀 주는 부슬비가 반가웠지요. 학교 밖 상가 건물 2~3층과 옥탑방을 임대해 사용하는 합숙소 문을 열자 후텁지근한 열기 속에 세제 냄새가 훅 밀려옵니다. 비가 오니 빨래를 실내에 널었겠거니 싶어 합숙소 안팎을 둘러보았지요. 빨래를 널 만한 공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실내에 널린 빼곡한 빨래는 아마도 일상적인 풍경인 듯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비가 오는 날이나 한겨울에는 거실이나 방 한쪽에 빨래를 널어 말립니다. 고단한 청춘들의 보금자리인 원룸이나

고시원 풍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 선수들은 아직 보호받아야 할 10대입니다. 공부하랴 운동하랴 안 그래도 피곤한 아이들이지요. 물론 본인 빨래를 손수 하는 것이 당연한 나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합숙소 안 풍경이 마치 빨래와 전쟁이라도 벌이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온종일 공부하고 운동하고 돌아와 편히 쉬고 싶은데, 여기는 쉬는 곳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 데 같아요. 여기저기 빡빡 닦아서 빤짝빤짝하게 만들어야 하고,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운동복을 하루에도 몇 벌씩 빨아야 하거든요."

H체고 육상부 3학년 최영은 학생의 힘겨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이렇듯 합숙소는 아직 10대인 학생 선수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가 아닌, 또 다른 지친 삶의 현장이 되고 맙니다.

사생활 불가능한 주거 공간

조사팀이 방문한 16개 기숙사 및 합숙소 중 한 방에서 7명 이상 생활하는 곳은 6개에 이르렀으며, 그중 4개는 한 방에서 10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생활이 아예 불가능하고 '개인'이 도무지 존재하기 어려운 공간이지요.

E중학교 축구부 학생 선수들은 방 하나에서 13~14명이 생활합니다. C고교 축구부 학생 선수들 역시 총 25명이 1층과 2층으로 나누어 생활하는데, 각 층은 방이 따로 없고 전체가 탁 트여 있어 사적인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어쩌다 하루 혹은 며칠이 아니라, 3년 내내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옥탑방에서 10여 명이 생활하는 곳도 있습니다. F고교 축구부 학생들 방입니다. 이곳은 옥탑방 구조상 한쪽 천장이 매우 낮아 걸을 때는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다.

오랜 전통과 전적을 자랑하는 이른바 '축구 명문' O고교 축구부는 합숙소만큼은 전혀 명성에 걸맞지 않습니다. 방 하나에 38명이 거주해 2009년경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지요. 지금의 합숙소 건물은 2011년 새로이 건축되었으나 10인실 1개, 7인실 3개, 6인실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여전히 비좁은 상태입니다.

I여고 농구부 합숙소는 비교적 청결했으나 이곳도 한 방에서 7명이 생활합니다. 당연히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불가능하지요.

그런가 하면, G고교 야구부 합숙소는 원거리 학생 5명만 상시 합숙을 하는 것으로 보고했지만, 인터뷰 결과 2019년 초 90일 이상 2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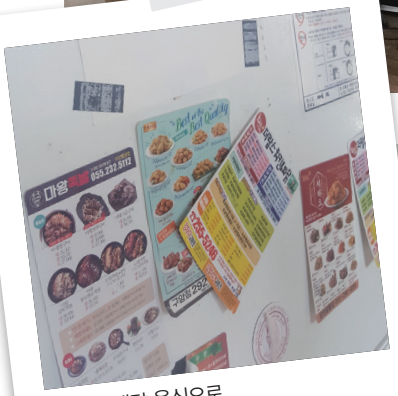
▲ '개인'이 존재하기 어려운 탁 트인 공간

▲ 비좁고 답답한 밀집형 구조

▲ 걸을 때는 고개를 숙여야 하는 옥탑방

▲ 빨래와 전쟁 중인 10대들

▲ 한여름에도 곳곳에 내걸린 겨울 외투



▲ 때론 배달 음식으로

▲ 때론 시리얼로

▲ 공중목욕탕 같은 샤워실

전원이 방 하나에서 상시 합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학교 축구부 합숙소는 더 열악합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1~2층에 5개씩 빽빽하게 놓여 있고, 방 하나에서 10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낡은 침대에다 환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곳곳에서 퀴퀴한 냄새까지 납니다.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이어야 할 샤워실이 공중목욕탕 같은 곳도 많습니다. 또 옥탑방에서는 수압이 낮아 씻고 빨래하는 걸 순서대로 하다 보니 아이들이 제시간에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한여름에 방문한 C고교 축구부 합숙소에는 겨울 외투가 드라이클리닝 비닐에 싸인 채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계절마저 초월하는 합숙소 풍경입니다.

"배가 고파서 서러워요"

"배가 고프거나 뭔가 먹고 싶을 때는…… 꾹 참아요. 배가 고파서 몰래 편의점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혼났어요. 감독님이 왜 야단을 치시는지 잘 알지만…… 서러웠어요."

배가 고플 때는 그저 꾹꾹 참다가 어쩌다 몰래 편의점에라도 다녀

온 날이면 눈물 쏙 빠지게 꾸중을 들어 서럽다는 H체고 육상부 3학년 최영은 학생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 건강을 잃는다는 요즘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배가 고파 서럽다니요.

물론 각자 종목에 맞게 몸을 만들어야 하는 학생 선수들에게 식사 조절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먹을 것을 조절하는 것과 단지 규율이나 여건 때문에 먹고 싶을 때도 참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요.

"먹는 것은 급식밖에 없고, 음식 반입은 안 되고, 주말에도 집에 못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다 집에 가면 폭식을 해서 오히려 몸무게가 늘어요."

H체고 육상부 1학년 이민정 학생은 기숙사 생활에서 먹는 문제가 가장 큰 고충이라고 합니다. 때론 간식을 몰래 가져와 들키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숨겨 두기도 한답니다.

아침을 굶거나 시리얼로 대신하는 학생 선수도 많습니다. K고교 농구부와 하키부 학생 선수들은 점심은 학교 식당에서 먹습니다. 하지만 합숙소에 별도 식당이 없어 아침은 굶거나 시리얼로 대신하고, 저녁은 외식을 하거나 부모님이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I여고 농구부 역시 아침 식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해서 먹고, 점심과 저녁은 어머니들이 매일 번갈아 가며 와서 지어 준다고 합니다.

10대들의 삶을 왜곡하는 섬 아닌 섬

합숙소를 고립된 섬이나 감옥, 군대에 곧잘 비유하곤 합니다. 그만큼 이 공간이 다른 생활 세계와 격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서 자신들만의 생활 패턴과 양식, 문화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지요. 그로 인해 합숙소는 삶의 기본인 의식주에서부터 아주 낯설고 생경한 문화로 10대들의 삶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들은 대개 중학교 때부터 집을 떠나 합숙소 생활을 하면서 운동선수의 꿈을 꾸고 진로를 결정합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한 시절을 이곳에서 보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살아가는 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입고, 먹고, 자는 문제에서조차 자유롭지 않은 채로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을 보내야 합니다(더 나아가 대학생 선수, 실업 선수 그리고 지도자가 되는 경우에도 합숙 생활을 지속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반평생을 합숙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청소년기를 이렇듯 잘 먹지 못하고 편히 잠들지 못하며 지친 일상을 되풀이하면서는 결코 훌륭한 선수, 아니 그보다 우선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기 어렵지 않을까요.

“안전시설은 기본이잖아요”

16년 전 비극이 떠오르다

조사팀이 D중학교를 조사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과거에 합숙소로 운영하던 곳을 현재는 쉼터로 전환해 학생 선수들이 합숙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합숙소를 폐지했다고 보고하고도 실제로는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더러 있어서 확인이 필요했고, 실제로 합숙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쉼터를 살피기 전 교장 및 담당 교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건물이 너무 낡고 스프링클러도 없는 등 안전 문제가 염려되어

쉼터로 전환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장 폐쇄 조치를 하려 했으나 아이들 아침과 저녁 식사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 입장과 식당 조리사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부득이 2020년 2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쉼터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쉼터는 그야말로 최악의 공간이었습니다. 반지하 건물이어서 햇살 한 줌 들어서지 못하는 곳이었지요. 퀴퀴한 냄새가 나고 눅눅해서 제습이나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구나 염려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주방이 바로 옆에 딸려 있어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는데도 실제로 스프링클러마저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은 자연스레 16년 전 천안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비극이 떠올랐습니다.

2003년 3월 비극적 사고로 9명의 어린 꿈나무가 하늘의 별이 된 천안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는 1993년에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일반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소방 점검을 하지 않다가 2002년 11월 학교 측 요청으로 점검을 했고, 전기 시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4개월 뒤 그 끔찍한 화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화재는 주방의 누전 때문이었는데, 비상구나 탈출구가 없어 아이들이 화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없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한 안전시설

걱정스럽게도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합숙소는 안전에 매우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조사팀은 CCTV, 소화기, 스프링클러, 비상구, 대피로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춘 곳은 전체 16개 기숙사 및 합숙소 가운데 불과 7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1개 이상의 항목에서 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이 5개, 비상구가 없는 곳이 6개, 대피로가 없는 곳이 3개였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비상구, 대피로를 갖추지 못한 곳도 2개나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되풀이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G고교 축구부 합숙소는 일반 학생 기숙사 건물 1층에 있습니다. 4개의 방이 연이어 있고 방마다 10여 명이 2층 침대를 사용하는데, 스프링클러, 비상구, 대피로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P고교 야구부는 학교 안에 일반 학생 기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구부만 독립적인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숙소는 1997년 지어져 매우 노후하고, 스프링클러와 비상구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진에 취약한 구조로 판정이 되어 2020년에 철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적절한

▲ 노즐이 제거된 스프링클러

▲ 외풍을 막지 못하는 낡은 외벽

▲ 안전시설이 미비해 쉼터로 전환한 합숙소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C고교 축구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고 보고한 곳입니다. 하지만 조사팀이 천장을 살펴보니 물이 분사되는 노즐을 모두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비상시 스프링클러가 작동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안전시설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토록 엉망인 안전시설 속에 놓여 있다니, 생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뜻밖의 반전

D중학교 축구부 숨터를 꼼꼼히 살핀 조사팀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학생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축구부 아이들은 밝고 명랑하며 구김이 없었습니다. 그 또래들답게 귀여운 장난기도 엿보이고, 얼굴 표정도 살아 있으며, 적당히 예의까지 발랐지요. 새벽 1시까지 시험공부를 하느라 잠을 설쳐 피곤해 죽겠다며 살짝 어리광도 부렸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조사팀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었습니다. D중학교 합숙소는 실제로 숨터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숨터로 사용하기에도 전혀 적절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합숙 생활을 단 하루도 하지 않았음은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은 표정이 살아 있었고, 오랜 합숙소 생활로 인한 무기력함도 보이지 않았으며, 긴장감도 드러내지 않았고, 사생활이 없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시험 때는 공부하느라 밤잠을 설칠 수 있고, 감독이나 코치가 아빠 같다며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르며 운동할 수 있는 아이들. 열악한 합숙소들을 돌아다니며 만난 반갑기 그지없는 뜻밖의 반전이었습니다. 합숙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학생 선수들에게는 안전시설 못지않게 생활 시설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합숙소는 다름 아닌 집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곳이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오고, 냉난방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한겨울에는 외풍이 심해 아이들이 추위에 떨어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안 돼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곳도 더러 있었지요.

아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으며 생활하도록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우선 급한 불을 끄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D중학교 아이들이 보여 준 뜻밖의 반전, 합숙소 생활을 하지 않을 때 볼 수 있는 아이들의 환한 얼굴, 그것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380개 기숙사 및 합숙소 모두에서 뜻밖의 반전이 이어지길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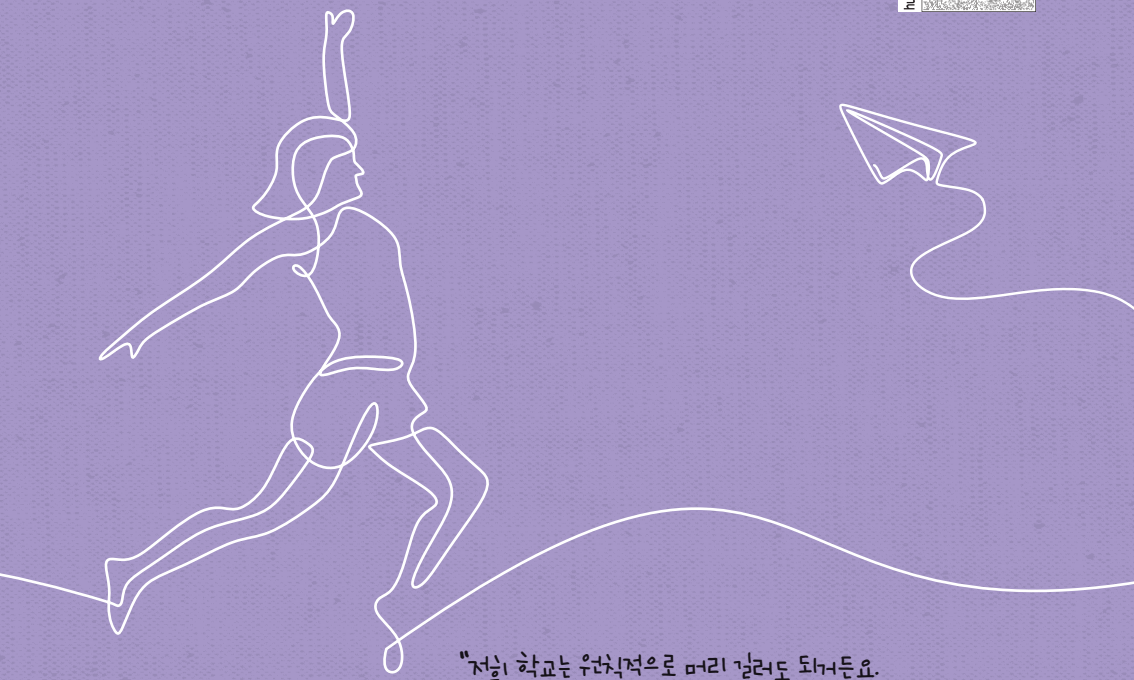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는데 마치 군대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애국가, 교가, 교훈, 학교 설립 목적, 교육 목표 등을 다 외우라는 거예요.
다 외운 뒤 선배가 '너 설립 목적 말해 봐' 그러면 줄줄 외워야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후유증 때문에 신입생 다 같이 펑펑 울었어요."

—H체고 육상부 1학년 이민정

"선배들이 심부름을 너무 많이 시켜서 기분이 나빠요.
대들지 않았는데 대들었다고 혼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운동을 그만두고 싶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선배들이 단체 기합을 주는데 굉장히 불쾌해요. 선배는 그냥 선배일 뿐이잖아요."

—중학교 탁구부 3학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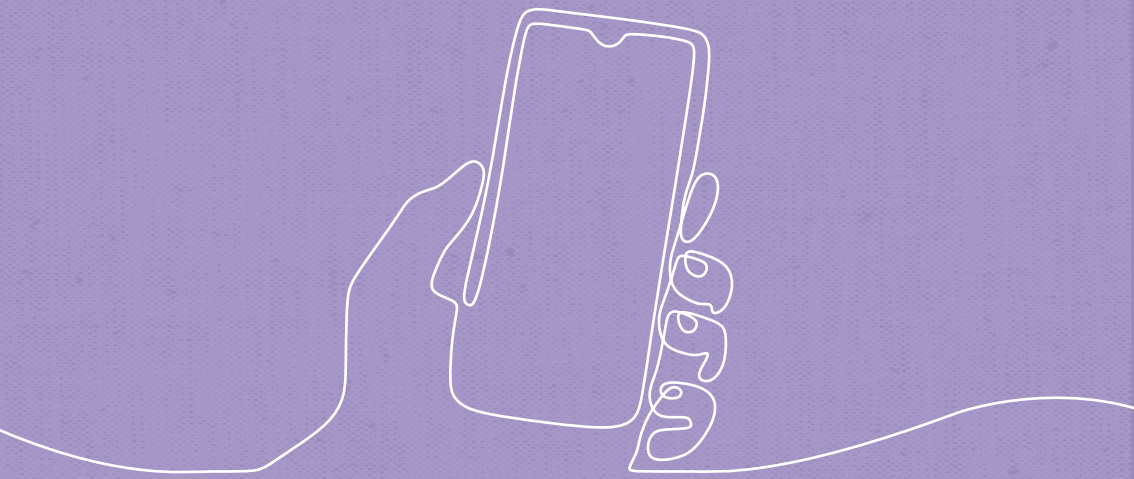
"저희 학교는 원칙적으로 머리 길러도 되거든요.
근데 운동부 학생들은 무조건 머리를 짧게 잘라야 한대요.
남자애들은 반삭발로 하라 그러고요.
저희가 말을 안 듣거나 대표 선발전 같은 중요한 시합을 망치면
머리 밀고 오라고 해요. 그럼 밀어야 해요. 여자애들은 조금 짧게 치라고 하고.
시합 성적하고 머리 길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B고교 태권도부 3학년 이다정

"머리는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뚜껑만 있는 정도로 짧게. 파마는 당연히 안 되고요."

—F고교 축구부 2학년 최영후

“우리 아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기숙사 규칙은 코치님이 만들었어요. 청소를 잘 안 하거나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휴대폰을 빼앗아 갑니다.
저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틀 동안 휴대폰을 빼앗겼어요.
청소를 하지 않아서 빼앗긴 적도 있고요. 너무 이상한 규칙입니다."

—O고교 축구부 2학년 이새롬

"휴대폰은 학교에 들어오는 일요일 오후에 수거해서
코치님이 가지고 있다가 갈한 일 있으면 주십니다.
휴대폰을 일주일 동안 돌려받지 못한 적도 있어요. 언제나 코치님 맘이에요."

—L중학교 축구부 2학년 양승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암기를 강요하고 군기를 잡는 구시대적 관행, 운동부 지도자 재량으로 만들어진 수칙과 규율 강요 등은 모두 단체 합숙 생활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오랜 관행과 습관처럼 대물림하면서 존속해 온 규율과 위계 문화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합니다.

학교 운동부 내 휴대폰 사용 금지나 두발 제한, 과도한 사적 생활 통제가 담긴 수칙 등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부 활동 수칙을 만들 때는 학생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애품’ 휴대폰을 돌려주세요”

볼모로 잡힌 휴대폰

G고교 합숙소를 둘러보던 조사팀은 신기한 물건을 목격했습니다. 복도에 비치된 휴대폰 수거함이었지요. 학생 선수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 수거함의 정해진 자리에 넣는다고 합니다.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어 누가 휴대폰을 내지 않았는지 금세 알 수 있다지요. 휴대폰을 일일이 수거하고 보관했다 돌려주는 일이 번거롭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진 놀라운 발명품입니다.

합숙소마다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생활 수칙은 합숙 공간에서 체력과 기량, 팀워크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과 생활을 강제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러한 수칙의 핵심에는 ‘시간’

이 있습니다. 학생 선수들의 시간을 통제해야만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생활 수칙을 만듭니다. 그러니 생활 수칙은 당연히 사적인 자유를 축소하게 마련이지요.

수칙에는 벌칙 조항도 포함됩니다. 그중 첫 번째 조항은 단연 휴대폰 제한입니다. 오늘날 휴대폰은 성인은 물론 청소년에게 그야말로 필수품, 가장 사랑하는 '최애품'입니다. 휴대폰 없는 생활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소통과 관계의 기본 수단이자, SNS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훌륭한 도구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대다수 합숙소에서는 휴대폰을 엄격히 통제하는 규칙을 정해 놓고 학생 선수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두는 건 그나마 가벼운 축에 듭니다. 감독이나 코치 등 지도자의 기분에 따라 내주었다 거둬들였다 하는 합숙소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애지중지하는 '최애품' 휴대폰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이지요.

"휴대폰 제한도 인권 침해 아닌가요?"

M공고의 생활 수칙에는 휴대폰 사용 시간을 어길 경우 벌금을 5만

원씩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O고교는 생활 수칙을 어기면 휴대폰을 제한하는 벌칙을 내걸고 있는데, 수칙의 경중에 따라 휴대폰 제한 일수가 달라집니다.

"휴대폰을 통제하는 이유는 야동 혹은 스포츠 토토를 보거나 단톡방에 이상한 사진, 영상 등을 유포할까 걱정되어서입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지도자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밥벌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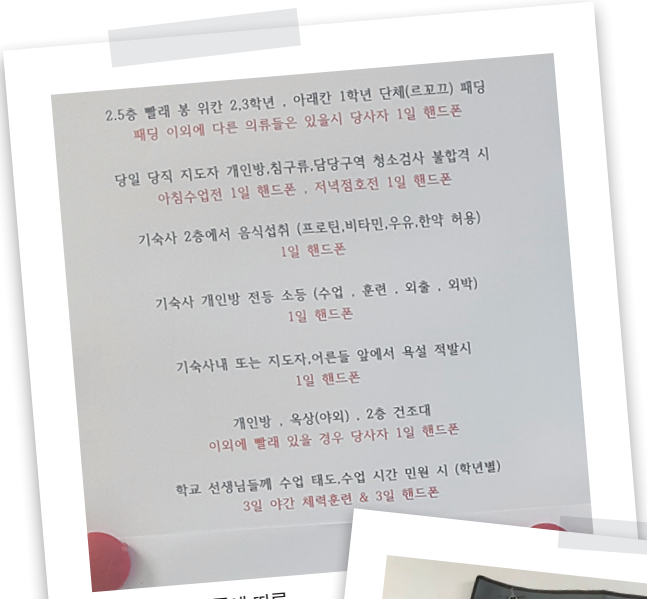
M공고 축구부 차강연 코치가 지도자 입장을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O고교 축구부 2학년 이새롬 학생이 들려주는 학생 선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휴대폰으로 축구 영상을 보고 싶은데 일정 시간 이후에는 걷어 가버리니 못 봐요. 지도자들은 우리가 휴대폰을 나쁜 짓을 하거나 여자하고 연락하는 데에만 쓴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 실태 전수 조사(이하 전수 조사)에서 나온 학생 선수들의 가장 큰 불만 역시 휴대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전수 조사에서 나온 학생들 목소리입니다.

"휴대폰은 학교로 돌아오는 일요일 저녁에 수거했다가 집에 가는 금요일 저녁에 돌려줍니다. 뭔가 우리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 생활 수칙 경중에 따른 휴대폰 제한 벌칙

▲ 누가 내지 않았는지 금세 알 수 있는 휴대폰 수거함

"일주일 내내 휴대폰을 빼앗기고 있어요. 휴대폰을 맨날 못 쓰게 하는 것도 인권 침해 아닌가요? 제발 휴대폰 좀 쓰게 해 주세요."

"휴대폰을 빼앗는 건 21세기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인권 침해입니다. 휴대폰을 빼앗긴 지 벌써 두 달째예요. 저도 불편하지만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고 불편해하십니다. 이런 규칙 바뀔 수 있게 꼭 좀 부탁합니다."

"휴대폰 좀 쓰고 싶습니다. 군대에서도 매일 쓴다는데 우리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받을까 말까예요. 휴대폰과 운동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 좀 안 걷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군대에서도 근무 외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허용합니다. 그로 인해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국방력이 약화되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군기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요.

인권위는 이미 2010년 '휴대폰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수업, 자율 학습, 취침 시간 외의 시간까지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학생 선수들은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제 맘대로 못 하나요?"

인터뷰에 응한 학생 선수들은 휴대폰 사용 제한뿐만 아니라 두발 제한, 연애 금지 등으로도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정한 '개성을 표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발 강요는 물론 여자 친구 교제를 금지하기도 해요. 3학년 형이 여자 친구 만나는 것을 감독님에게 들킨 적이 있는데, 감독님이 3밀리 삭발을 지시했어요. 저도 삭발을 두 번 당했는데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O고교 축구부 2학년 이새롬 학생이 언짢은 목소리로 당시를 떠올립니다. 전수 조사에서는 머리 스타일에 대한 규제가 너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제법 많았습니다. 다음은 그중 한 학생의 억울함입니다.

"코치님이 투 블록을 치지 말래요. 별로 안 단정하다고. 진짜 너무 억울해요. 머리 스타일도 제 맘대로 못 하나요? 파마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슬리퍼를 신으면 안 돼요. 근데 코치님은 슬리퍼 신고 다니시거든요. 코치님은 신고 다니면서 우리에겐 양아치냐면서 못 신게 하십니다."

이처럼 인권에 반하는 행위가 가능한 조건은 역시 합숙소입니다.

▲ CCTV를 통해서도 감시당하는 학생 선수들

▲ 스프링클러는 없지만 CCTV는 침실에도

지도자가 감시하고 통제하며 학생 선수들을 이끌어 가는 생활 공간이어서 가능한 것이지요.

스프링클러는 없으면서 CCTV는 침실에까지 설치

학생 선수들은 CCTV를 통해서도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16개 기숙사 및 합숙소 가운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에는 모두 설치되어 있었지요. 안전시설이 부실한 합숙소에도 CCTV만큼은 꼼꼼히 달려 있었습니다. 물론 합숙소는 시설 안전이나 범죄 예방을 위한 측면에서 CCTV 필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설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곳에 설치한 합숙소도 많았습니다.

먼저, E중학교 축구부 합숙소에는 실내 복도에 1개, 복도와 연결된 식당 출입구에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심지어 침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이 무색해지는 지점입니다.

G고교 야구부 합숙소에는 CCTV가 4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운영

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안내문은 어디에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CCTV 촬영 영상 정보가 합숙소 내 지도자실로 실시간 전송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도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요. 그러나 범죄 발생 시 사후 영상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관리자도 아닌 운동부 지도자가 실시간으로 학생 선수 생활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은 엄연한 사생활 감시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체고에서는 더욱 심각한 형태의 감시 체계를 보여 줍니다. 건물 복도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사감실에서 이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전상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더 커요. 기숙사는 우리에겐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 집에는 CCTV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몹시 불편해요."

H체고 육상부 2학년 강아름 학생의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 학교는 외부 음식은 절대 반입할 수 없고, 인원 점검을 하루에 네 번 이상 하며, 병원 진료 등 외출 시에는 사감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CCTV가 이와 같은 규칙 위반을 적발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남자애들이 여자 숙소에 가서 놀고 있거나 여자애들이 남자 숙소

에서 놀고 있으면 방송을 해요. '너희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각자 자기 방으로 가라' 고요. 다 보고 있는 거죠."

J체고 수영부 3학년 최강물 학생이 조사팀의 의구심을 사실로 확인해 줍니다.

이처럼 CCTV는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한다는 최소한의 목적을 벗어나 우리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정한 사생활의 비밀,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매일매일 온몸이 긴장 상태예요”

관등성명 외치는 여고생들

“안녕하십니까!”

H체고를 방문한 조사팀을 향해 학생들이 큰 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교사나 외부 손님을 보면 그 즉시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참 예의가 바르구나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 깍듯한 인사가 인터뷰를 마친 뒤에는 못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선배들이 제 물건을 만지면 ‘예 305호실 4번 최영은입니다’라고 관등성명을 엄청나게 크고 빠르게 외쳐야 해요. 머리를 말리거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후배들이 꼬박꼬박 ‘나가 보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인사를 받아 주기도 되게 민망하고 부담스럽죠. 이런 규칙을 왜 만들었나 싶어요."

H체고 육상부 3학년 최영은 학생은 기숙사 생활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흰 양말을 신어야 해요. 옷 정리도 각 맞춰서 해야 합니다. 양말 접는 법, 속옷 개는 법, 겉옷 개는 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침대 정리법도 정해져 있고요. 또 모든 물품에 이름을 적어야 해요. 생리대에도 옷걸이 하나하나에도요. 심지어 옷걸이나 샴푸도 꼭지 방향을 전부 오른쪽으로 향하게 해야 해요. 식사할 때는 한 손만 써야 하고요. 젓가락으로 밥 먹다가 국을 먹고 싶으면 젓가락 내려놓고 숟가락을 들어야 해요. 그뿐 아닙니다. 식사 때 반찬을 남겨서는 안 돼요. 특히 선배랑 있을 때는 남기면 절대로 안 돼요. 물론 음식은 남기면 안 되니까 이건 좋은 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 음식도 선배에게 일일이 사정을 말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거라서 다들 자연스럽게 여기는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정말 매일매일 온몸이 긴장 상태예요."

깍듯한 인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듯했습니다.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상명하복 질서가 엄격한 과거 군대의 모습, 바로 그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너희는 군대나 교도소에 사는 것 같아"

같은 학교 육상부 2학년 강아름 학생도 점호 시행, 인원 파악, 청소 검사 등 과거 병영적 규율과 문화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녁 점호하고 청소 검사를 받을 때 몸을 살짝 밀면서 지적을 해요. 왜 그러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군기를 잡으려는 것 같아요. 인원 보고는 하루 네 번 하는데, 모두 층장, 총층장, 사감 등에게 보고해야 해요. 1학년 때는 바닥에 앉아서 점호를 받았습니다. 옷장 문 다 열어 놓고요. 바지는 옷걸이에 걸고 상의는 접어 놨는지 일일이 체크를 받았어요. 일반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너희는 군대나 교도소에서 사는 것 같아' 라고 해요."

육상부 1학년 이민정 학생은 끔찍하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애국가, 교가, 교훈, 학교 설립 목적, 교육 목표 이런 것을 다 외우라는 거예요. 다 외운 뒤 선배가 '너 설립 목적 말해 봐' 그러면 줄줄 외워야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후유증 때문에 신입생 다 같이 펑펑 울었어요."

암기를 강요하고 군기를 잡는 관습은 최근 군대에서조차 낡은 유물로 사멸해 가는 악습입니다. 그런데도 학교 운동부 합숙소에서 이러한 구시대적 관행이 계속되면서 아이들을 매일매일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점호, 각 잡기, 관등성명 외치기 등 운동부 지도자의 재량으로 만들어진 수칙과 규율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후배의 위계에 따른 이른바 '빨래 셔틀'이나 마사지 강요도 일상적으로 벌어집니다.

이는 모두 집에서 통학하거나 학교 밖에서 사적 생활을 자유롭게 누리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체 합숙 생활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행위는 오랜 관행과 습관처럼 대물림하면서 존속해 온 것입니다.

관리와 통제를 위한 규제

H체고는 기숙사 안에서 MP3를 비롯한 모든 전기 제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학생들은 매우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하지요.

"드라이기가 1층 화장실에 4개밖에 없어요. 화재 예방을 위해 층마다 비치해 놓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 등교 시간에는 드라이기 때문에 정말 불편해요. 1층 화장실이 엄청나게 붐비거든요. 또 제빙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제빙기는 운동선수에게 꼭 필요하거

든요. 부상당했을 때 얼음찜질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언젠가 단체로 장염에 걸린 적이 있어서 없애 버렸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대신 없애 버리는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관리와 통제를 위한 간단한 해결책이지요.

또 H체고 기숙사에는 독서실, 휴게실, 학생회실, 시청각실, 마사지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문이 잠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은 사감이나 기숙사 총괄 교사 허락 없이는 이런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또한 학생들을 쉽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겠지요.

"제가 학생 선수일 때는 규제가 정말 많았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규제를 되도록 풀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팀 지도자나 주변에서는 다들 저더러 '미쳤다' 고 했어요. 하지만 경기력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경기력은 강압과 규제로 향상되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A여고 여자축구부 황도영 감독의 말은 엄격한 규율과 위계로 얼룩진 합숙소 문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예전부터 합숙소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괴롭히는 폭력 문화가 있었어요.
저도 많이 당했는데 선배들은
또 그 위 선배들에게 더 심하게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3학년 되고 나서 끊었어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야구를 잘하고 싶어서입니다.
폭력이 일어나 신고하고 그러면 일이 커지잖아요.
친구 중 누군가 후배를 잡으려고 하면
'우리 1학년 때를 생각하자' 하면서 서로 말려요."

—P고교 야구부 3학년 이주영

"합숙소 생활은 정말 해선 안 돼요.
코치님이나 감독님의 비리, 폭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선배에게 폭력을 당했지만 후배들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하지만 합숙소 생활을 하면
당연히 트러블이 생기고 구타가 있게 마련입니다."

—중학교 야구부 3학년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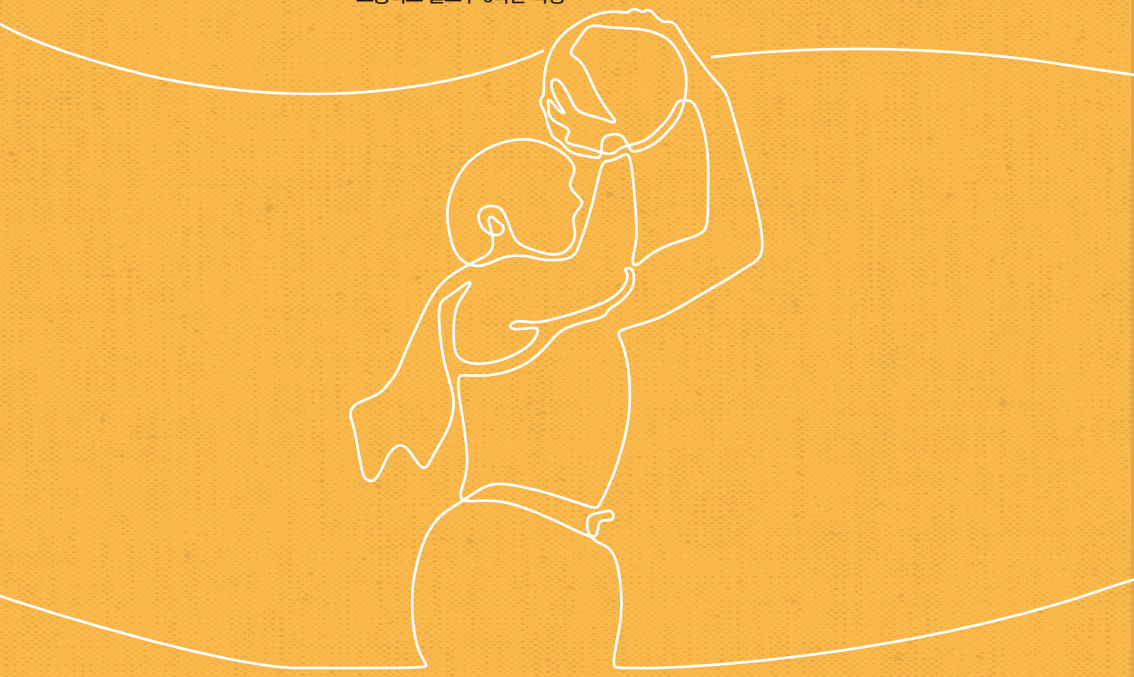
“우리 아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생리 중인데 남자 코치님이 수영장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파서 못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생리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기까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아, 처음에는 '생리'라는 말도 쓰기가 민망해서 '그날이에요'라고 했어요.
생리는 자연스러운 신체 현상인데 편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과제였습니다."

—J체고 수영부 3학년 최강물

"코치님의 구타와 폭언이 너무 심해요. 고쳐지면 좋겠지만
코치님 성격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보복,
즉 더 심한 욕과 구타가 있을 게 분명해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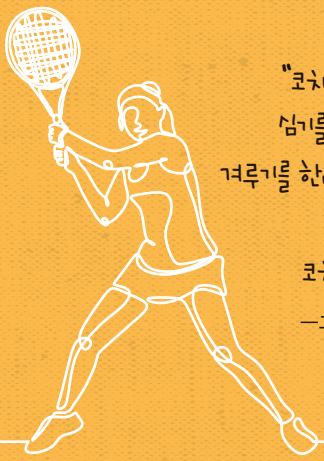
—고등학교 골프부 3학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선배들이 계속 볼을 만져요.
또 가끔 동기들을 엎드리라고 한 뒤 때립니다.
욕도 많이 하고요. 선배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중학교 테니스부 1학년 학생



"코치님이 합숙 훈련을 강요하고
심기를 건드리는 말도 자주 합니다.
겨루기를 한다는 핑계로 신체적 폭력도 하고요.
운동하는 것도 힘든데
코치님 때문에 더 힘들어요."

—고등학교 태권도부 2학년 학생

교육 당국은 학생 선수와 지도자, 교사, 학부모 등의 인권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 침해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철저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행동 지침을 마련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특정 성별을 이유로 교육 시설에서의 교육과 훈련,
그 이용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성차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들의 운동과 생활 전 과정에서 성차별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과 여가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난이라는데 너무 괴로워요”

동성 선수의 유사 성행위 강요

“1학년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성기를 빨아 달라고 했어요. 단둘이 있을 때도 그러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1년 넘게 당하다 보니 너무 괴로웠습니다.”

F고교 축구부 3학년 김용준 학생은 동급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았다고 털어놓습니다.

“축구부 거의 전원이 당했는데, 저는 더 심한 경우였어요. 우리 엄마에 대해 성적으로 욕을 했거든요. 그 형은 장난이라고 변명했지만, 저는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2학년 최영후 학생 역시 같은 학생에게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았

습니다. 거절하자 괴롭힘이 시작됐지요. 민감한 신체 부위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부모를 거론하면서 성적 언어 희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축구부 전원이 유사 성행위와 폭력을 당한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은 특별 교육 이수와 전학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받고 피해 학생들은 교육이나 상담을 받지 못하는 등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은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7개월간 이어진 상습 구타와 단체 기합

E중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는 무려 7개월간 상습 구타와 단체 기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군대에서 많이 발생한 공동체 서열화가 초래하는 폭력 구조의 전형적인 사례였지요. 가해 학생들은 축구부 3학년 5명과 2학년 6명인데, 3학년 주요 가해 학생은 주로 2학년들을 구타했고 때로는 2학년들에게 1학년들을 구타하도록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대개의 폭력 사건에서 그렇듯이 가해 학생의 폭력 행사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바지가 없어졌다고, 후배들이 모이는 시

간에 늦게 왔다고, 샤워를 늦게 했다고, 떠든다고, 장난을 많이 친다고, 3초 안에 방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못 나갔다고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후배들을 합숙소에 한 줄로 세워 놓고 가슴을 때리기도 하고, 40분 정도 열중쉬어 자세를 강요하기도 하며, 머리를 바닥에 박으라고 한 뒤 욕을 하며 발로 밟기도 했습니다.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까지 곁들이면서 가슴에 피멍이 들 정도로 구타를 하기도 했지요. 폭력의 양상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가혹하고 잔인하게 후배들을 장기간 괴롭혔습니다. 후배 학생들 개개인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을 상대로 한 단체 기합과 폭행은 물론 '빨래 셔틀'과 마사지까지 강요했습니다.

이토록 끔찍한 가해는 7개월 이상 지속되었으나 피해 학생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죽인 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두 학생이 상담 교사에게 털어놓게 되었지요.

이 사례는 사건 자체도 놀랍지만, 이후 처리 과정은 더 놀랍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는 접촉과 협박, 보복 금지, 특별 교육을 시행하고, 주요 가해 학생에게는 강제 전학 조치를 취하며, 피해 학생들에게는 전문가의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심의했습니다. 그러나 조사팀이 만난 피해 학생들 인터뷰 결과는 달랐

습니다. 가해 학생은 강제 전학이 아닌 자발적 전학으로 처리되었고, 또 다른 가해 학생들은 여전히 같은 축구부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들은 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들조차 가해자의 합리화 언어인 '장난'으로 내면화

이 학교 합숙소는 2개의 방에서 10명 이상씩 선후배들이 함께 생활하는 구조입니다. 폭력 행위는 방, 화장실, 샤워실, 창고 등지에서 코치가 잠든 후 이루어졌습니다. 가해 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피해 학생들이 지속적인 폭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폭력 행위가 합숙소 내에서 합숙소 생활과 관련해 이루어졌습니다.

합숙소에 코치가 생활하는 방이 별도로 있고 폭력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코치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또한 감독은 '선수들을 잘 교육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고 하면서도 상시 합숙 훈련의 폐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반 학생들에 비하면 학생 선수들은 합숙소 생활 덕분에 폭력 문제와 관련해 더 잘 관리된다거나 이러한 사건은 일부 '문제 있는' 학생 개인에게서 비롯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매우 심각한 사건임에도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유와 상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조치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관련 학생들은 폭력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갖기보다는 가해 또는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부 사실은 '장난이었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조차 폭력을 가해자의 합리화 언어인 '장난'으로 내면화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력 사건 다발 장소는 연습장 다음 합숙소 순

2006년 인권위에서 시행한 '초등학교 학생 운동선수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상당수가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발생 장소는 합숙소가 연습장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중고교 학생 운동선수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서도 대다수가 합숙소에서 빈번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지요.

인권위에서 2019년 7월 시행한 전수 조사에서도 성폭력 피해 다발 장소는 훈련장 다음 합숙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 남학생의 경우, 피해 장소가 합숙소라고 응답한 학생은 여학생

▲ 7개월간 상습 구타와 단체 기합이 자행된 장소

▲ 공포심을 조장하는
'축구부' 지도자실의 '야구 방망이'

9.7%에 비해 상당히 높은 21%로 나타나, 합숙소 생활이 남학생 동성 선수들 사이의 성폭력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어적·신체적 폭력 장소 또한 합숙소가 높은 순위로 기록되었고, 이 같은 경향은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합숙소가 (성)폭력 발생 온상지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결과입니다.

재발 가능성 높은 합숙소 내 (성)폭력

인터뷰에 응한 50명의 학생 선수는 대체로 '예전에는 감독님이나 코치님에게 많이 맞았지만…… 요즘은 안 그래요'라거나 '다른 학교는 좀 맞는다던데…… '라면서 지도자의 폭력에 관해 다소 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감독이나 코치의 폭력이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수 조사 결과를 보면, 신체 폭력 경험자는 중고교 학생 선수 모두 20%를 웃돌았으며 주요 가해자는 40% 이상이 코치나 감독 등 지도자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지도자에 관해 솔직해지기 어려웠으

리라 짐작되는 이유입니다.

체육 교사나 지도자 등은 '스포츠 미투' 이후 '잠재적 가해자'가 되어 마음이 불편하다고 호소합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코치하는 지도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폭력과 체벌이 일상이던 시절을 살아온 지도자들이 폭력에 관해 왜곡된 시각을 지닌 것 역시 사실이지요.

O고교 축구부 합숙소 안 지도자 방에는 야구 방망이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축구부' 합숙소에 놓인 야구 방망이 쓰임새가 무엇인지 궁금했지요. 축구부 3학년 민영환 학생이 답을 줍니다.

"청소 시간에 코치님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며 검사하세요. 그걸로 때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실제 체벌을 하지 않더라도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 자체가 엄연한 폭력입니다.

이처럼 합숙소는 동성 또는 이성의 선수들과 지도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 발생 개연성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례들에서 보듯이 (성)폭력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조치, 교육,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등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일부 지도자들의 폭력에 관한 왜곡된 시각까지 더해져 이와 유사한 사건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여자다움요? 자궁을 없애고 싶어요”

'여자다움' 강요 아래 지워진 여성의 권리

“지난해까지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려는 목적으로 여학생 기숙사에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문을 폐쇄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방법이 없었지요. 제 친구가 2층 침대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발이 부러져 목발을 짚었는데도 당시 사감 선생님이 ‘너 하나 때문에 문을 열어 줄 수는 없다’ 고 했어요.”

J체고 수영부 3학년 최강물 학생은 당시를 회상하며 너무 어이없었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자치위원회 학생들이 부당하다고 의견을 내서 현재는 여학생들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러한 성차별적 관행은 여학생에게 더욱 가혹한 규율을 강요하는

행위로도 이어집니다. H체고 육상부 1학년 이민정 학생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규율이 더욱 심하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청소 검사를 받을 때 손으로 먼지를 쓸어 봐요. 여학생은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보고' 관습이 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선배에게 반찬 남긴 상태를 보고하고, 물 마시고 오겠다고 보고하고, 화장실 쓸 때도 먼저 나가겠다고 보고해야 해요. 남학생들은 안 그런다고 해요."

'여자는 깨끗해야 한다'는 소위 '여자다움'을 강요받는 것이지요. 이렇듯 '여자다움'과 같은 성차별적 편견에 사로잡힌 강력한 규율과 수칙을 강요하면서도 여성 선수에게 보장되어야 할 건강권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힘들 때는 자궁을 없애 버리고 싶어요"

여학생 선수들은 생리 기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지만, 쉬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절반이 여자인데, 아직도 생리 이야기를 떳떳하게 하지 못해요. 너무 힘들 때는 잠시 누워 있는 정도입니다. 생리 중 겪는 통증

이나 고통은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해도 '너만 하는 거 아니잖아' 혹은 '나도 운동할 때 다 견뎠다'라고 할 것 같아서 감독님이나 코치님에게 말을 안 해요. 생리통으로 너무 힘든데도 훈련을 계속해야 할 때는 자궁을 없애 버리고 싶어요."

H체고 육상부 2학년 강아름 학생의 다소 충격적 발언은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해 줍니다.

수영 선수인 최강물 학생은 여학생 수영 선수만의 고충을 들려줍니다.

"생리통이 심한 날은 연습을 조금 줄여 주는 정도예요. 아무리 아파도 하루 종일 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생리통보다 더 힘든 건 생리 중에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리 때문에 대회 출전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생리를 늦추는 약을 먹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엄마가 그런 약 먹으면 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먹지 않아요. 피가 나오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다리에 피가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삽입형 생리대를 이용하면 괜찮은데, 전 너무 아파서 쓰지 못해요."

여학생 선수들은 지도자와 '생리'라는 단어를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제라고 호소합니다.

"생리 중인데 남자 코치님이 수영장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처

음에는 그냥 아파서 못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생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아, 처음에는 '생리'라는 말도 쓰기가 민망해서 '그날이에요'라고 했어요. 생리는 자연스러운 신체 현상인데 편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과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학생 선수 대부분은 자신에게 맞는 생리용품 선택이나 생리 중 감염 우려 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남학생 합숙소로 가서 밥을 먹어요"

B고교 태권도부는 남학생은 교내 합숙소에서 생활하고, 여학생은 학교에서 도보로 10분 이상 걸리는 다세대 주택을 임대한 별도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는 교내에 있는 남학생 합숙소에서 남녀 학생 모두 배달 음식으로 해결합니다. 따라서 여학생들은 매일 아침 교내로 이동해 식사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지요.

"매일 아침 6시 50분에 일어나 남학생 합숙소로 이동해서 아침을 먹습니다. 7시 20분까지 아침을 먹고 돌아와 씻고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 8시 20분까지 등교해요. 남학생들은 우리보다 늦게 일어나도 되니 여유 있게 아침 시간을 보내요. 10분이 야속한 바쁜 아침, 남학생 합숙소까지 걸어가다 보면 뭔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학년 이다정 학생이 부당함을 토로합니다.

두 칸짜리 방에서 9명이 생활하는 여학생 합숙소는 얼마 전까지 여성 코치가 함께 생활했으나 코치가 실업팀에 입단하는 바람에 현재는 아이들끼리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기가 어렵다는 것이 학교 측 입장입니다. 유일한 3학년인 다정이 사실상 사감 역할까지 하고 있지요. 가끔 여교사들이 방문해서 고충을 들어 주거나 한 달에 한두 번 학부모들이 방문하고는 있지만, 다정은 후배들까지 챙겨야 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인터뷰에서 만난 학생 선수 중에는 여학생 선수가 비교적 적었습니다. 합숙 생활을 하는 전국 중고교 1만여 학생 선수 중 여학생 비율은 20% 정도였고, 그에 걸맞게 인터뷰 대상자도 남학생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합숙소 안의 성차별적 요소를 꼼꼼히 살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요. 전수 조사에서도 여학생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미투' 이후 쏟아져 나오는 많은 여성 선수의 아픔이 실은 중고교 시절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

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합숙소 안에서 여학생 선수들이 겪는 차별이나 고통은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교 당국을 비롯해 전 사회적으로 여학생 선수들의 성차별적 고통에 대한 더 세심한 눈길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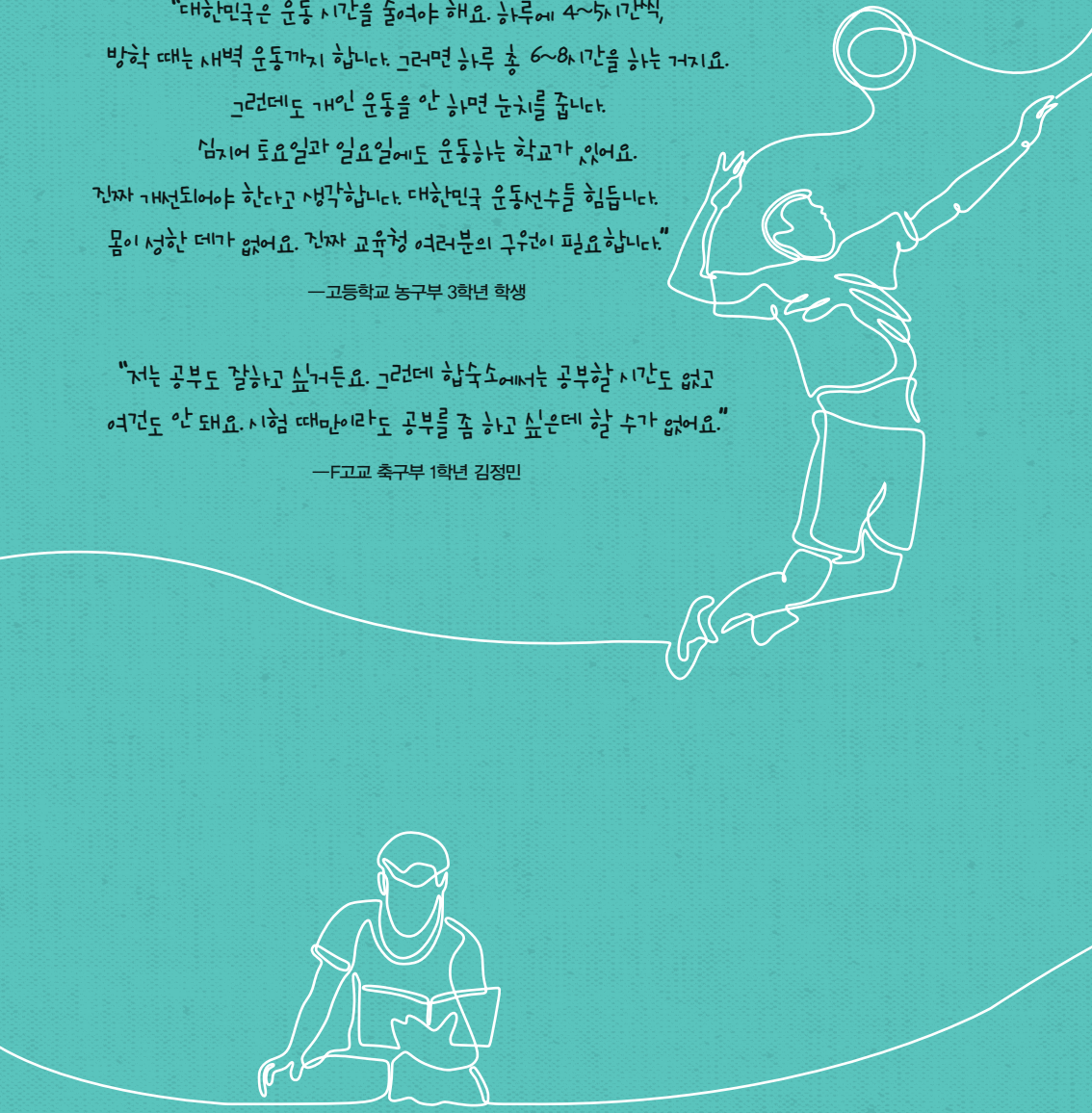
“우리 아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대한민국은 운동 시간을 줄여야 해요. 하루에 4~5시간씩,
방학 때는 새벽 운동까지 합니다. 그러면 하루 총 6~8시간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개인 운동을 안 하면 눈치를 줍니다.
심지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운동하는 학교가 있어요.
진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운동선수들 힘듭니다.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진짜 교육청 여러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농구부 3학년 학생

“저는 공부도 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합숙소에서는 공부할 시간도 없고
여건도 안 돼요. 시험 때만이라도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F고교 축구부 1학년 김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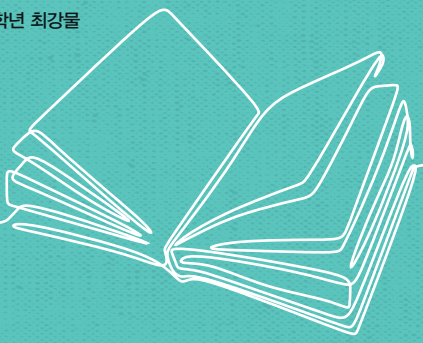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수업 시간에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자요.
시험도 거의 찍는 수준이고요. 제 교과서는 교실에 있는데 다른 애들이 사용해요.
저는 책 표지에 제 이름 딱 적 자 서 놓고 덮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펼쳐 본 적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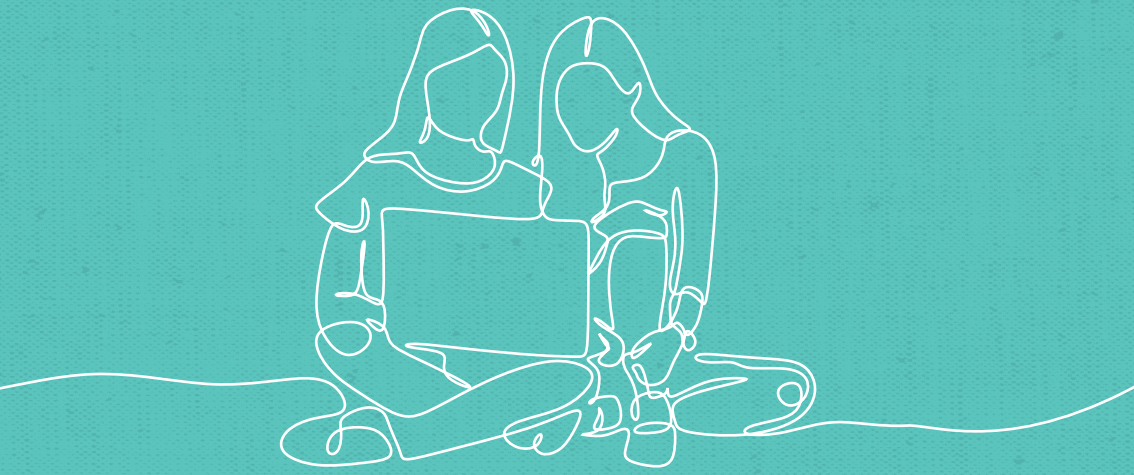
—B고교 태권도부 3학년 이다정

"학기 말이 되면 애들이 이스쿨 들으라 바빠요. 근데 실제로 들지는 않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에 가서 화면 띄워 놓고 방에 가서 쉬어요.
그러다 좀 지난 뒤 다시 컴퓨터실로 가서 화면 바꿔 놓고요."

—J체고 수영부 3학년 최강물



“우리 아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시험 기간에는 사감 선생님이 소등을 안 해도 눈감아 주거나
코치님이 새벽 운동을 빼 주기도 해요. 그러면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데,
기숙사 안 책상이 너무 비좁아서 오래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학습실도 있기는 한데 냉난방이 안 돼서 이용하지 못합니다."

—J체고 수영부 3학년 최강물

"훈련 시간이 너무 길어요. 좀 줄여 주세요. 쉬고 싶어요.
가끔은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나요. 야구가 싫어질 정도로요."

—중학교 야구부 3학년 학생

"합숙소에서 컴퓨터를 하면 안 돼요.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스쿨은 주말에 휴대폰 받았을 때 하거나 PC방 가서 돈 내고 들어요."

—F고교 축구부 2학년 최영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상시적인 단체 합숙 생활과 훈련 구조는
학생 선수 개인의 학습 욕구를 충족할 조건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학생 선수가 공부할 만한 여건을
근본적으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합숙소가 유지되는 한
'공부하는 학생 선수' 실현은 요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공부도 잘해야 하느냐'고 묻는
학생 선수들의 고민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싶은' 학생 선수나 '공부도 잘해야
하느냐'고 묻는 학생 선수 모두의 고민을 해결해 줄
근본적인 답이 필요합니다.

"즐겁게 운동하고 싶어요"

기계처럼 운동만 하는 학생 선수의 왜곡된 삶

합숙소에서의 생활은 계속되는 훈련과 경기로 빈틈없이 짜여 있습니다. 새벽 및 오전 훈련, 학교 수업, 오후 및 저녁 훈련 그리고 점호와 취침이 반복되는 일상이지요. 주말 리그가 있거나 전지훈련을 할 경우에는 주말이나 방학 때도 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전국 대회를 앞두면 훈련은 더욱 강화됩니다. 여가나 휴식은 꿈도 못 꾸지요.

하루 1~2시간 짧게 주어지는 자유 시간조차 합숙소 시설과 여건이 허락지 않아 온전히 즐길 수 없습니다. 그저 합숙소에 누워 있는 게 전부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집으로 가지만, 이때도 아이 대부분 운동을 같이한 친구를 만나는 일 말고는 달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학생 선수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지 못하고 '운동 기계'로 불릴 정도의 혹독한 훈련이 목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훈련과 시합 일정으로 꽉 찬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훈련과 경기로 정신과 육체를 착취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렇게 혹사당하는 조건은 바로 합숙소입니다.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나서 운동과 식사, 학교 수업, 또다시 운동,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생활은 합숙소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이는 가정에서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리듬에 따라 공부하고 운동하는 자율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삶입니다.

서약서까지 쓰면서 강요받는 훈련

이러한 착취는 강제적이어서 학생 선수가 선택하고 결정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중학교 태권도부 3학년인 한 학생은 지도자가 하계 훈련을 서약서를 쓰면서까지 강요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학생 선수에게 훈련하러 가라면서 강제로 서약서까지 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협박 아닙니까? 전 가기 싫은데, 코치님이 강제로 시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학생 선수들은 감독이나 코치 등 지도자의 협박을 결코 거부할 수 없습니다. J체고 수영부 3학년 최강물 학생은 기숙사 생활에서 가장 큰 고충이 소위 '무박'이라는 주말 귀가 금지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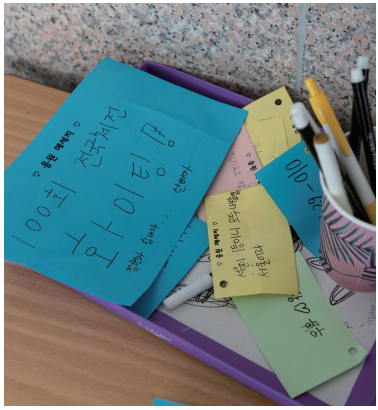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1학년 때는 무박이라고 해서 집에 못 가게 했어요. 2~3주 동안 못 간 적도 있습니다. 시합도 중요하고 훈련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하루 쉰다고 엄청 차이 나는 거 아니거든요. 코치님에게 사정해서 무박 중 딱 한 번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집으로 가려는데 '기록 못 나오면 다 네 탓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협박처럼 들렸어요. 그 뒤로 그냥 가지 말자고 마음먹었어요. 1월부터 10월 전국 체전 때까지 수시로 무박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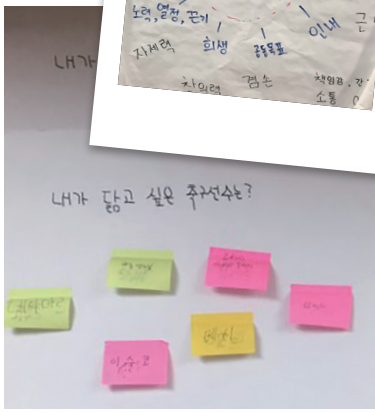
그러다 보니 간혹 합숙소를 무단이탈하는 학생 선수도 있습니다. J체고 근대5종 감독은 학생 선수들이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꼭 있다고 합니다.

"기록경기는 훈련이 힘들어 개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대5종은 훈련 과정이 하루 5~6시간이 소요되어 학생 선수 대부분 고충을 호소하지요. 모두 꾹꾹 참고 있습니다. 가끔 무단으로 나갔다 돌아오는 학

▲ 온종일 함께 뛰고 달린 운동화와 운동복

▼ '행복한 선수'가 되고 싶은 아이들





생들이 있는데, 왜 그랬느냐고 물으면 '갑갑해서요'라고 합니다."

학생 선수 착취로 작동하는 학교 체육 시스템

스포츠 활동에 투여되는 에너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학생 선수들 운동 강도는 지나치게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혹사함으로써 주어지는 산물은 학생 선수 개인만의 것이 아니지요. 학교 체육 시스템이 작동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떠받치는 바탕에는 학교 운동부와 합숙소가 있습니다.

"현재 엘리트 스포츠 체계 고착에는 체육 교사들 책임도 있습니다. 체육 교사들이 망쳐 놓았다고 할 수 있지요. 운동부가 전국 소년 체전 등에서 금메달을 따면 운동부 담당 체육 교사는 연구 점수 1등급의 가산점을 부여받아 진급이 빨라집니다. 학교 운동부 교사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학생들을 훈련과 경쟁으로 내모는 이유입니다."

한 체육 교사의 뼈아픈 자기 고백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선수들이 당하는 이러한 '혹사'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싶어요” vs “공부도 잘하라고요?”

공부를 우선하는 외국의 학생 선수들

학생 선수는 선수이기 전에 학생입니다. 학생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을 뜻하지요. 공부가 본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학생 선수들은 운동보다는 공부에 주안점을 둡니다. 성적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대회 출전이 불가능하고, 정규 수업 중에는 훈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규 수업을 마친 뒤 운동을 하고 다시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오래전부터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심하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착시킨 결과이지요.

반면, 엘리트 선수 육성에 주안점을 둔 우리는 학생 선수가 수업에

빠지는 것을 당연시해 왔습니다. 운동 하나 잘하면 됐지 공부까지 잘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모두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 선수가 직업 선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학생 선수 중 일부만 직업 선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경기력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선수 생활을 중도에 접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포기한 채 오로지 운동만 해 온 학생 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할 경우 앞날은 그야말로 먹구름입니다.

법적 제도 장치 마련과 운영 방식 조정

이런 현실을 고려해 2013년 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에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 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학생 선수는 정규 수업을 이수해야 하고 최저 학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규 수업 이수와 관련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수업 일수의 3분의 1까지는 학교장 허가 아래 대회 및 훈련 참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수업 일수가 195일이라면 65일은 운동만 해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최저 학력 기준은 학생 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및 교과별 평균 성적과 비교하여 초등학생 50%, 중학생 40%, 고등학

생 30%(예를 들어 평균이 70점이라면 초등학생은 35점, 중학생은 28점, 고등학생은 21점에 해당)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비관적입니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한 체육 교사는 냉정한 현실을 들려줍니다.

"지금의 최저 학력 기준, 수업 인정 결석 3분의 1 허용, 이스쿨(e-school)을 통한 보강 등이 실제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우리 학교 한 학생 선수가 수업 시간에 날마다 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야단도 몇 번 치고 했는데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상담을 해 보았지요. 자기는 초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운동을 시작한 뒤로는 도저히 수업을 따라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업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바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현행 학교 운동부 운영 방식을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고, '2020년부터 초중고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학교장이 허가하는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일수를 축소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학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부도 잘하고 싶지만……
'책장에 갇힌' 교과서들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합숙소 환경

이렇듯 법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되고 운영 방식이 조정되면 우리 아이들은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바보가 되었다'는 한탄이 나오지 않을까요? 조사팀이 들여다본 합숙소는 전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사 대상 16개 기숙사 및 합숙소 중 별도의 학습 시설을 갖춘 곳은 E중학교가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학습 시설을 갖춘 곳은 6개뿐이었지요. 이마저도 적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K고교는 체육 교사의 말에 따르면 체육관 안에 별도의 학습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합숙소에는 책상 등 공부할 만한 시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컴퓨터는 고장이 난 채 방치되어 있었지요. 합숙소 내 환경을 미루어 보면, 체육관 안에 있다는 학습 시설은 구색 맞추기용이 아닌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N공고는 2~3명이 이용하는 방에 책상과 의자가 달랑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아이들이 책상을 번갈아 이용해야 합니다. 자기 순서가 아닌 학생은 방바닥에 엎드려서 공부를 해야 하지요.

C고교 축구부 합숙소는 학습 시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 '공

부하는 학생 선수'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A여고 역시 방 안에 책상과 의자만 있을 뿐 별도의 학습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L중학교는 거실에 컴퓨터와 의자를 비치하고 이곳에서 이스쿨 등을 수강하고 있다면서 학습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거실은 쉬는 공간이지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방문 대상 합숙소 대부분이 이렇듯 법령에 따른 조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에도 구비한 것으로 보고하고 승인받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합숙소 대부분은 학생 선수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적절히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제도의 변칙적 운용과 유명무실한 이스쿨

학교장 재량 또는 운동부 지도자의 요구에 따라 수업을 대폭 축소하고 있음에도 학생 선수들이 정규 수업에 모두 참여한다고 보고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시험을 보면 서너 과목에서 100점을 받을 정도로

▲ 컴퓨터는 무용지물, 이스쿨은 유명무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오전 수업만 하거든요. 오늘같이 특별한 날(인권위 조사팀처럼 외부 방문객이 오는 날)이나 수행 평가 있는 날 빼고는 오후에는 수업을 거의 안 들어요."

F고교 축구부 1학년 김정민 학생의 말은 학교 측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조사팀은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방문 시각을 수업이 모두 끝나는 오후 시간으로 학교 측과 조율한 상태였습니다. 정민의 말을 듣고 보니 방문일 수업은 '조사팀 방문'을 위한 눈속임이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칙적 운용이었지요.

한편, 이스쿨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 선수들은 경기나 연습 때문에 빠진 수업을 이스쿨로 보충합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만난 아이들 대부분은 이스쿨을 무용지물로 여겼습니다.

우선, 이스쿨을 차분히 들을 만한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휴대폰은 제한적이고, 전자 기기는 반입할 수 없는 곳이 많으며, 그나마 합숙소에 한두 대 놓인 컴퓨터는 고장이 난 채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회 출전에 필요한 수업 일수를 채워야 하는 다급한 경우에는 근처 PC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마저도 화면을 틀어 놓고 딴짓을 한다고 아이들은 고백합니다.

둘째, 이스쿨은 수업 진도와 다른 내용이 대부분이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실제 공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싶어요" vs "공부도 잘하라고요?"

"저는 공부도 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합숙소에서는 공부할 시간도 없고 여건도 안 돼요. 시험 때만이라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 때까지 서너 과목에서 100점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는 정민은 자꾸만 곤두박질치는 성적 때문에 괴롭다고 합니다.

H체고 육상부 1학년 이민정 학생 역시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에도 따로 공부하도록 훈련을 느슨하게 해 준다든가 하는 배려가 없어서 불만이라고 합니다. C고교 축구부 2학년 이하늘 학생도 합숙소에 공부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고 시험 기간에 훈련을 빼 주지 않아 공부가 벅차다고 말합니다. 벼락치기로 시험을 치르다 보니 성적은 늘 성에 차지 않는답니다.

이렇듯 공부도 잘하고 싶다는 아이들은 공부할 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반면, 공부에 손을 놓은 학생

선수들 고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수업은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오전 수업만 해서인지 수업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었거든요. 수업 시간에는 보통 자거나 졸아요. 팀원 중에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공부는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공부까지 잘해야 하나요?"

C고교 축구부 2학년 김한영 학생은 합숙소 생활 6년 차입니다. 오랫동안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는데 이제 와 공부까지 잘하라니 괴롭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사팀이 만난 학생 선수 중에는 공부에 대한 열의가 넘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공부가 너무 부담되고 힘들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공부를 전혀 할 수 없는 합숙소 환경, 법적 제도를 변칙적으로 운용하는 지도자들, 유명무실한 이스쿨 등은 우리 아이들의 시름과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공부도 잘해야 한다'고 요구하려면 우선 아이들 고민과 시름을 덜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길 끝에서 마침내 만날 환한 얼굴

"당장 합숙소를 없애 주십시오!"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합숙소에 들어간 아이가 맨날 선배들 빨래나 하고 청소나 하고 있답니다. 심지어 두들겨 맞기까지 한다니, 부모로서 속이 터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리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당장 합숙소를 없애 주십시오!"

한 학부모가 격앙된 목소리로 분통을 터트립니다.

합숙소 실태 조사와 학생 선수들의 심층 인터뷰를 마치고 2019년 10월 교육 당국 관계자, 정책 입안 관계자, 운동부 지도자, 교사, 학부모 등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장에서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한마음으로 각자 주어진 현실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나 해결책 등 다양한 제언을 쏟아 냈습니다. 그러나

합숙소를 꼼꼼히 살피고 아이들 목소리를 귀담아들은 조사팀은 그 무엇보다 학부모의 격앙된 목소리에 백번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학생 선수들은 밀집된 공간에서 단체로 잠을 자고, 가장 은밀해야 할 사적 공간인 샤워실마저 공중목욕탕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손수 지어 먹거나 시리얼로 대충 때워야 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뿐 아니라 안전시설마저 매우 취약해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는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휴대폰 사용 금지와 두발 제한, 암기를 강요하고 군기를 잡는 구시대적 관행, 과도한 사적 생활 통제가 담긴 수칙과 규율 강요 등으로 마음이 답답하다고 외칩니다. 매일매일 온몸이 긴장 상태라고 호소합니다.

또한 폐쇄된 공간에서 선후배는 물론 지도자에 의한 (성)폭력에 노출되어 고통스러워합니다. 여학생 선수들은 '생리통으로 몹시 힘겨운데도 훈련을 멈출 수 없어 자궁을 없애고 싶다'는 충격적 발언을 할 만큼 건강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매일 정

해진 시간에 따라 '기계'처럼 운동만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외칩니다. 또래들처럼 재미있게 놀고 편히 쉬며 그 속에서 얻는 에너지로 즐겁게 운동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운동뿐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어서 고민이 깊어진다는 아이들도 있고,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을 운동만 하면서 공부와는 담을 쌓고 살았는데 이제 와 공부까지 잘하라니 힘들어 죽겠다고 한숨을 내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생 선수 모두 하나같이 "우리 너무 힘들어요" 외치고 있습니다.

합숙소 앞 인권이 뚜벅뚜벅 걸어갈 길

합숙 생활을 하며 청소년기를 보내고 프로팀에서 선수 활동을 하다 유소년 야구 코치를 거쳐 현재 어느 고교 코치로 일하는 한 지도자는 '상시 합숙을 하면 경기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옛날 사고방식'이라고 단언합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합숙을 한다면 프로 선수도 다 합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조사 대상 학교 중 유일하게 합숙소를 운영하지 않는 어느 중학교에서 만난 아이들 표정은 반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명랑하

고 생기발랄했습니다. 오랜 합숙소 생활로 인한 무기력함이나 긴장감과는 거리가 먼 표정이었지요. 그 또래들답게 적당히 예의 바르고, 장난기도 엿보이며, 시험공부를 하느라 잠을 설쳤다고 살짝 어리광까지 부렸습니다. 아이들의 환한 얼굴을 보면서 '합숙 생활을 하지 않아 경기력 향상이 어렵겠구나' 하는 걱정은커녕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 모두 반드시 제 꿈을 이루고 저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마침내 숲을 이루겠구나' 확신했지요.

그 환한 얼굴은 아직은 충분히 보호받고 옳은 길로 안내받아야 할 10대 청소년인 학생 선수들에게, "우리 너무 힘들어요" 외치는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보호자로서, 지도자로서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합숙소 앞에 멈춰 선 인권이 뚜벅뚜벅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환한 얼굴은 우리가 걸어가 마침내 만날 얼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합숙소 실태 조사를 가능하게끔 애써 도와주신 교육 당국 관계자들, 학교 당국 관계자들, 운동부 지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터뷰에 응해 준 학생 선수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부디, 그 꿈을 모두 이루어 내길, 그래서 이 땅의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스 | 포 | 츠 | 인 | 권 | 리 | 포 | 트 |

합숙소 앞에 멈춰선 인권

합숙소에 사는 학생 선수들의 목소리

인쇄 | 2019년 12월 24일
발행 | 2019년 12월 30일

발행인 |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주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15층
연락처 | 전화 (02)-2125-9700, 인권 상담 전화 1331, 팩스 (02)-2125-9718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집필·편집 | 신윤덕(프리랜서 편집자)

ISBN 978-89-6114-735-4 03370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765-01

• 이 책의 저작권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집필자 공동 소유이므로 부분 혹은 전체를 이용할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집필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15층
전화 (02)-2125-9700 | 인권 상담 전화 1331 | 팩스 (02)-2125-9718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735-4 03370